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완성도 높은 축제 선보일 것”



## 황운기 광주 총장축제 총감독 선임

국내 대표 퍼레이드 축제 연출가…오늘 위촉식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총감독 등 굵직한 경력

황운기 전 ‘파워풀대구 페스티벌’ 총감독(51)이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신임 총감독으로 선임됐다.

광주 동구는 “6일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신임 총감독 위촉식을 열고 황운기 총감독을 공식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황 총감독은 오는 2월까지 올해 축제의 기본 구상을 마무리하고, 3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는 ‘파워풀대구 페스티벌’ 총감독을 6차례 역임하며 축제 기획과 운영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축제 전문가다. 원주 ‘다이너미크 댄스카니발’ 총

연출을 맡았으며, 국내 최초로 퍼레이드 축제를 연구해 공연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이론과 현장을 두루 갖춘 국내 대표 퍼레이드 축제 연출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총감독 선임은 제22회 총장축제 폐막식에서 차기 축제 주제인 ‘추억의 노래’를 조기 공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발 앞선 기획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진행했다.

동구는 황 총감독의 전문성과 풍부한 퍼레이드 연출 경험이 광주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을 추진 중인 총장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총장 퍼레이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0여 명의 총감독 후보군을 구성해 후보자 인터뷰와 언론 보도자료 분석, 총장축제와의 연출 적합성 검토, 개별 면담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황운기 총감독은 “그동안 쌓아온 퍼레이드 축제 기획·연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시민들의 소중한 기억과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추억의 노래’라는 주제를 생동감 있게 구현하겠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걷고, 함께 노래하는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총장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와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조선대, 개교 80주년 첫 일정 5·18 민주묘역 참배

### 대학의 역사적 책무·민주정신 되새겨

조선대학교가 2026년 개교 80주년을 맞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선대 교무위원들은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년 시무식에 참석한 뒤 국립 5·18민주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참배에는 김이수 이사장과 김춘성 총장, 강희숙 행정부총장, 교무위원, 조민혁 총학생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학 구성원들이 민주·인권·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조선대의 역사적 책무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립 5·18민주묘역 제1묘

역과 제2묘역을 차례로 둘러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조선대 출신으로 민주화 과정에 헌신한 김동수·김기삼·이강하·허규정·문병란 동문들의 안장 묘역을 찾아 그 뜻을 기렸다.

조선대는 개교 80주년을 맞는 올해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짚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전환의 해로 삼아,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과 연구, 대학 운영에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80주년을 만들어가며, 광주를 대표하는 민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선대 김이수 이사장(가운데), 김춘성 총장(왼쪽)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이수 이사장은 “개교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의 시작을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함께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조선대는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대학의 역사 속에서 계승해 온 만큼, 앞으로 지역과 함께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국민 배우’ 안성기 별세…금관문화훈장 추서

### ‘황혼열차’ 아역배우 시작…170여편 작품 활동

‘국민 배우’ 안성기가 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안성기 배우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안성기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2019년부터 혈액암 투병을 해온 안성

기는 최근 회복에 전념하며 작품 복귀를 준비해왔다.

안성기는 2020년 원지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검진받는 과정에서 암 재발이 확인됐다.

지난 2020년 10월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고 2022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혈액암 투병 사실을 밝혔다.

영화 제작자였던 부친 안화영씨와 친구



사이였던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1957)에 아역 배우로 출연하며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1959년 출연한 김기영의 작품 ‘10대의 반항’

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았다. 1980년대에는 구도자의 만행을 그린 ‘만다라’(1981), 빈민으로 나온 ‘교방동네 사람들’(1982), 거지 ‘민우’로 분한 ‘고래사냥’(1984), 후배 박중훈과 함께 한 ‘철수와 만수’(1988) 등을, 1990년대

에는 한국 영화가 산업자본을 만나며 큰 변화를 겪었듯이 그는 다채로운 캐릭터를 맡으며 최고 전성기에 올랐다.

안성기는 아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9년간 170편 넘게 출연하며 영화계를 이끌었다. 2017년 데뷔 60주년을 맞아 영화계가 안성기의 영화 인생을 돌아보는 특별전을 여는 등 각별하게 예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고인에게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은 9일 오전 6시. 장지는 양평 별그리다다.

연합뉴스



장세일 영광군수가 최근 베트남 출신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있다.

## 영광군,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공무원’ 첫 채용

### 다문화 공직 진출…포용 행정 본격화

영광군은 결혼이민자 공무원을 처음으로 채용하며, 포용적 행정 실현과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베트남 출신 오모씨(34·여)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담 공무원으로 첫 채용했다.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광군가족센터에서 2년간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한 바 있다.

오씨는 1년간 가정행복과 가족복지팀에 배치되어 영광군가족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족 상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채용은 결혼이민자의 공직 진출 사

례가 드문 현실에서 다문화 구성원이 지역사회와 행정 주체로 참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이번 첫 채용을 계기로 행정현장에서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이해는 민원 응대와 정책 전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다문화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공직에 참여하는 영광군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배경과 차이를 넘어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통해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 안영근 전남대병원 교수, 대한심장학회 회장 취임

### “한국 심장학 국제 경쟁력 강화·환자 중심 진료 도약”

전남대학교병원은 안영근 순환기내과 교수가 대한심장학회 제6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올해부터 1년간이다. 안 신임 회장은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중재시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연구·교육을 균형 있게 이끌어 온 국내 대표적 심장내과 전문가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과 복합 병변 치료분야에서 다기관 임상연구를 주도하며 란셋(Lance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한국 심장학의 표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등도 맡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혈전지혈학회 이사장, 대한심장학회 기초과학연구회 회장, 대한심장학회 연구이사, 간행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심장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안영근 신임 회장은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수십 년간 회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며 “앞으로는



안영근 순환기내과 교수가 대한심장학회 제6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근거 기반 진료의 고도화는 물론, 디지털 헬스, 정밀의학,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심장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심장학회는 1957년에 창립된 국내 심장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매년 대규모 학술대회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심혈관질환 진료 수준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선종선·권병욱 전남도어가 대표가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2026년 신년 첫 고향사랑기부이자 1호 고액기부자의 주인공에 이름을 올렸다.

## 장흥군, 올해 1호 고액기부자 탄생

### 선종선·권병욱 전남도어가 대표 500만원 기부

선종선·권병욱 전남도어가 대표가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2026년 신년 첫 고향사랑기부이자 1호 고액기부자의 주인공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기부는 올해 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고액기부 사례로, 지역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군은 출향 향우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선종선·권병욱 대표는 “새해를 맞아 고

향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에 참여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희망을 더하고, 많은 분들의 공감과 참여로 이어지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 군수는 “올해 첫 고향사랑기부자 1호 고액기부로 500만원을 기탁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



포스코광양제철소와 전남드래곤즈는 최근 광양시청에서 지역사회에 쌀 7200kg(2184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감사나눔 희망 GOAL’ 쌀 전달식을 가졌다.

## 광양제철소·전남드래곤즈

### ‘희망 GOAL나눔행사’ 쌀 7200kg 전달

포스코광양제철소와 전남드래곤즈는 최근 광양시청에서 지역사회에 쌀 7200kg(2184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감사나눔 희망 GOAL’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박종일 제철소 행정부소장, 송종찬 전남드래곤즈 사장,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달된 쌀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들에게 전달됐다.

박종일 제철소행정부소장은 “전남드래곤즈와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

각한다”며 “광양제철소와 전남드래곤즈에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만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의 GOAL쌀은 정구시즌 동안 드래곤즈 선수들이 홈경기에서 골을 넣게 되면 광양제철소와 전남드래곤즈가 골당 각각 100kg씩 통합 200kg을 적립해 연말에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달한다.

이번 희망GOAL쌀 나눔으로 제철소와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2012년부터 총 6만 1400kg(20kg 3070포)를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